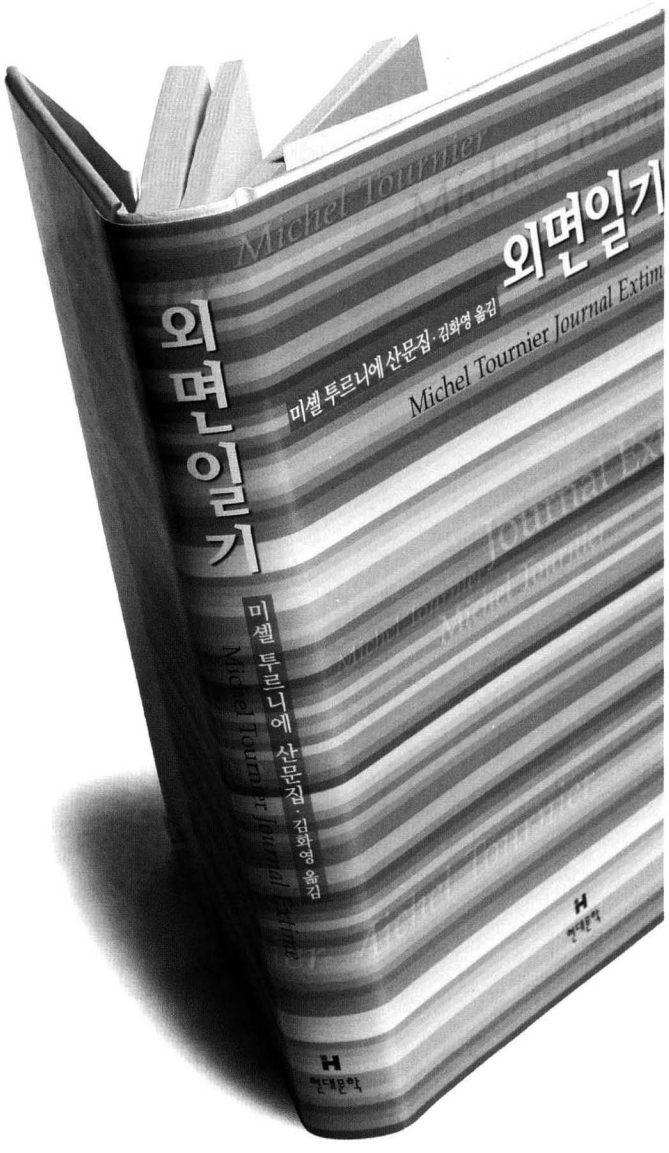


대부분의 일기는 하루 일과를 마치며 책상에 작은 등불을 켜놓고 앉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과 반성의 글로 채워진다. 이와 달리 프랑스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의《외면일기》는 여행중에 겪은 일, 자신이 사는 집과 동네에서 생긴 일, 날씨와 자연의 변화 같은 '외면'의 사건들을 옮긴 기록이다. 책 전체를 1월에서 12월까지 열두 장으로 나눈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기후와 관련된 것이다.

그가 사는 시골 마을은 겨울의 경우엔 한결 온도가 높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하다. 봄에 만물이 되살아나며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가을에 곡식이 한껏 무르익으면서 낙엽이 지고 겨울 들녘은 여간 쓸쓸하지 않다. 그런데 그가 주목하는 건, 잔잔하고 부드럽기보다는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거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극적인 사건들이다. 사나운 광풍에 여러 집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들이 길바닥에 드러눕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 심어놓은 전나무 두 그루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미워하듯이 점점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매년 3월이면 넓적부리 오리들이 그가 사는 '성스러운' 사제관 정원에 날아와서 터를 잡고 살며 무지막지한 식욕을 과시하는 동시에 난잡하고 광포한 교미의 향연을 벌이고, 몹시 무더운 날 천둥소리가 요란하건만 비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며, 가을날 폭풍이 불어와선 낙엽을 어지러이 흩어놓는 게 아니라 작은 무더기로 깨끗하게 모아놓는다.

파리에서 백 리 떨어진 이곳 시골에서 투르니에는 오십 년 가까운 날을 붙박이로 살아왔다. 일기 내용에 미루어 그는 독신자이며, 생전에 어머니와 같이 생활한 적이 있거나 어머니께서 자주 집에 놀러 오신 걸로 보인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고, 두 모자가 나누는 대화는 더없이 신랄하면서 줄곧 서로를 공격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묘하게도 늘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이들의 대화를 감싼다. 그가 평생 독신자로 살아온 것은, 더없이 재미나고 명민하면서 시니컬한 화법을 즐기는 여성이 모성의 이름으로 늘 곁에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겨질 정도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뜨면 유골가루를 아들의 집 정원에 뿌려달라고 유언

파리로부터 백 리,
시골마을에서 전해 온 사랑의 철학

하셨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에 아들은 어머니의 몸으로 뒤덮인 그 정원을 거닐 때면 여전히 그 분과 즐거운 냉소를 주고받으며 시골생활의 무료함을 달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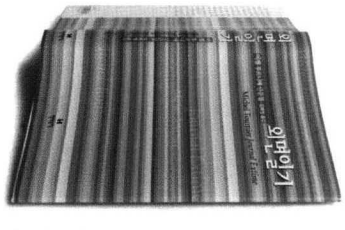
올해로 팔십 줄에 들어선 작가의 나이에 걸맞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죽음으로 여겨진다. 그만한 세월을 건너왔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을 접했겠는가. 실제로 이 책에 들어갈 글들을 쓰는 중에도 수많은 그의 벗들이 병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곁에서 사라져갔다. 언뜻 보기에 그는 죽음에 초연한 사람 같은 인상을 준다. 치명적인 암에 걸려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빠진 친구에게 모자를 선물하면서 농담을 건네는 순간이 그러하며, 어느 날엔 초음파 검진을 받은 결과 자신이 심장비대증을 앓는 걸로 밝혀지자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세상엔 암으로 인한 더러운 죽음과 심장으로 인한 깨끗한 죽음이 있는데, 자신은 깨끗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한 쪽 발을 무덤 속에 담고 있다'는 표현에 대하여, 병들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절반을 땅 속에 묻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죽음을 시종일관 냉철한 눈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상의 존재들을 돌아보며 비애감에 잠길 때가 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중심 테마를 죽음으로 이해한 나의 진단은 바로잡는 게 옳다. 진정한 테마는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집을 고치러 오는 동네 사람들과 우편배달부와 들판의 농부들을 사랑하며, 어른들 이상으로 빈번하게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시골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들은 그에게 끝없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생활의 지혜와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얻어낸 철학과 시를 나눠준다.

다락방의 양탄자가 빛바랜 걸 보고 실내 장식업자가 "달빛에 바랬군요" 하고 말할 때, 정육점 주인이 "나처럼 진짜 당신을 잘 아는 처지라면 당신이 쓴 책 같은 것은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하고 물어올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아홉 살 난 아이 알렉상드르의 물음에 "그럼, 물론이지!" 하고 대답하자 그 아이가 "아,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나겠네" 하고 기뻐할 때, 그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또한 그는 정원에서 가꾸는 나무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며, 이제껏 살아오며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자리한 여행지에 대한 기억들을 줄기차게 되새김질한다.

아포리즘에 가까운 짤막한 메모와 인용문에서 반짝이는 작가의 뛰어난 위트와 유머감각은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어느 집에 들어서자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달려들며 사납게 짖어댄다. 깜짝 놀라 물러서는 그에게 그 집 주인이 힐난한다. "뭘 그렇게 겁을 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걸 자네도 잘 알잖아." 그러자 투르니에가 곧바로 대꾸한다. "나야 알지. 하지만 개도 그걸 알까?" 박쥐가 날아가는 걸 보고 생쥐가 소리친다. "오, 천사로구나!" 영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맨체스터에 사는 어느 주민이 하는 말. "이 도시는 공기가 어찌나 나쁜지, 아침에 잠이 깨면 새들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린다."

직업이 소설가이니만큼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문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다. 그는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많은 소설을 출간했다. 그런데 한번은 셴느 출판사에 어떤 원고를 넘겨준 일이 있었는데, 갈리마르의 사장이 매우 섭섭해하며 그를 나무랐다. 그러자 즉석에서 투르니에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격언을 지어내서 이렇게 응수했다. "여보게. 출판사 사장이라면 이런 한국 격언을 늘 명심하고 지낼 필요가 있다네. 작은 배신이 큰 결혼을 낳는다." 출



《외면일기》
미셸 투르니에 지음 | 김화영 옮김 | 현대문학 | 332쪽 | 값 11,000원

이 글을 쓴 원재길은
연세대 사학과 및 같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나는 눈물을 묻고 있는 자들》을 냈고, 전작 장편소설 《겉옷과 속옷》을 발표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장편 《모닥불을 밟아라》《적들의 사랑 이야기》, 소설집 《벽에서 빠져나온 여자》《달밤에 몰래 만나다》, 시집 《나는 걷는다 물먹은 대지 위를》 등을 냈다.